



AI 도시 광주 시민의 삶에 인공지능 접목

하수도 관리·구급차에 AI 기능 탑재...공공의료 시스템도 구축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시가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의 삶과 행정, AI(인공지능)를 접목하는 신선한 시도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갑자기 쏟아 붓는 폭우 피해에 대비한 도심 침수 방지 기능부터 하수도 악취 해소, AI 119구급차, AI 공공의료시스템, AI어린이 놀이터 등 분야와 범위가 다양하다.

19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에 따르면 시는 '인공지능 선도도시' 선점을 목표로 AI와 시민생활, 그리고 행정을 결합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엔 환경부에 AI활용 도시침수 대응, 하수 악취 관리사업 등을 제안해 국비 483억원 등 692억원을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침수피해가 잦은 극락천과 서방천 수계를 중심으로 AI점포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시엔 AI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제어시스템이 즉시 가동돼 하수 월류(越流) 등에 따른 도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축적한 데이터와 실시간 강우 유출 데이터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도시침수 발생 위험지역 내 빗물펌프장 등 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심 하수악취 민원이 심각한 동·남구 일부 지역 하수관로에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저감시설(악취 흡입)까지 가동하는 AI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이 설치된다.

시민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야에서도 AI시스템 도입이 한창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월부터 119안전센터 구급차 5대를 대상으로 AI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실증 작업을 수행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119안전센터 인공지능 시스템은 구급차에서 실시간으로 보내는 환자영상과 생체신호, 구급대원 음성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환자의 증등도 등을 신속히 판단해 구급차에는 이송병원 추천과 최적

차량경로 정보 등을, 응급의료센터에는 환자의 실시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 최초로 'AI공공의료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민제강형 의료플랫폼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은 2025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광주시민 대상 AI의료앱 보급, 5개 보건소·지역 2200여개 병·의원 대상 AI의료지원플랫폼 지원, AI헬스케어실증센터 등을 구축한다.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시민은 앱을 통해 진단·검진·처방기록 등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의 의료 관련 영상을 CD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 중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도 있다.

'AI헬스케어실증센터'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구축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AI기술을 접목해 기초검진·재활 등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 조성 계획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최신 기술을 집약한 미래세대 맞춤형 'AI어린이 상상 놀이터'를 오는 2025년 개관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도 AI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광주시청 디지털 AI종합상황실·조직도, 챗봇 소통 홈페이지 구축 등 일반 행정 곳곳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있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과거 산업사회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시민생활과 결합한 AI 사업 개발·운영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며 "각각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배구 열기 '후끈'

19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AI페퍼스타 여자 배구단과 KCG인삼공사의 도드람 2021~2022 V리그 개막전. AI페퍼스타 엘리자벳이 강스파이크를 때리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여순사건,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후 첫 추념식

진실 규명·명예회복 염원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을 기리는 여·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이 19일 여·순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지난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추념식은 전남도와 여·순·천·광·양·시,

구례·고흥·보성 군 등 동부권 6개 시군이 합동으로 준비했다.

추념식에는 여순사건 유족과 제주 4·3 유족을 비롯해 전몰군경회, 순직경찰 유족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정근식 진실과화해위원장, 장석웅 전남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권오봉 여·순시장, 전창곤 여·순시의회의 의장 등도 참석했다. 정지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주철현·이용빈·김희재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식전 행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정각에는 여·순과 순천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추념식은 여순사건 추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유족 등 주요 내빈의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추모사에서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나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흐려보낼 수 없는 아픈 역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추념사에서 “내년 1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둔 만큼 민주당은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온전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순사건이 더는 현대사의 비극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역사로 승화돼 나쁜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 SL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쏘다

2천t급 잠수함서 발사 가능성

군 “한미, 동향있어 예의주시”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관련기사 2면〉

북한의 SLBM 발사는 2년 만으로, 최근 공개되어 대남공격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미니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오늘(19일)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km, 사거리 약 590km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기존 고래급(2천t급)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포는 북한이 ‘북극성-4·5·6’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3천200t급)을 건조 중인 장소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생명인품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2021 국제농업박람회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

2021. 10.21.~10.31.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주최 전라남도

주관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KASFI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FAO 한국협회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로복지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 KR 한국농어촌공사 NH농협 한국관광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 한국도로공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차세대 트로트 스타 배아현